

# 폼페이오 “핵리스트 제출”...김정은 “신뢰구축 먼저”

日요미우리 신문 보도

김 “리스트 제출해도 믿지 않을 것  
중전선언 하면 비핵화 속도낸다”



지난 7일 평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회동장을 향해 함께 걷는 모습, 김정은은 왼쪽 뒤로 보이는 인물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은 대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간 주요 요구 사항에서 입장차가 남아 있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향후 진행되는 실무자 협의가 진전될지에 달려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핵 리스트의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수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북미간 신뢰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중전선언을 통해 북미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도 거기에 응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중전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 계획 제거도 요구하고 보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또는 국외 반출하면 “중전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시설은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에 의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에 대한 사찰 허용은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자 협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당하며, 조만간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다만 실무자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도 실무자 협의가 난항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53〉 서예가 안진경

안진경(709-785)의 자는 청신이며 장안에서 출생했다. 당나라의 대표적 서예가로 해서·행서·초서에 뛰어났다. 덕종때 난을 일으킨 이희열을 설득하려 갔다가 살해당했다. 안노공(顔魯公)으로 불리운다.

‘안씨가훈’을 저술한 안지추의 5대 손이다. 부친 안유정의 7남 가운데 6째다. 734년 진사 갑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736년 비서성저작국 교서랑이 되었다. 748년 감찰어사로서 되어 하서 지방의 민정을 살피게 되었다. 이때 유명한 어사우(御史)라는 일화가 탄생했다. 구당서 안진경전에 따르면 오원 지방에 억울한 소송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그가 부임해 판결하니 소송이 해결되어 기뻐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사

개혁과 더불어 번진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열정을 기울였다. 그러나 재위 초 재상인 유안과 양염을 처형하는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 간신 노기가 재상이 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노기는 음모에 능하고 시기심이 강해 안진경과는 물과 불의 사이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번진 세력이 자주 난을 일으켰는데 회서절도사 이희열도 그중의 한 명이었다. 783년 이희열이 낙양을 점령하자 노기는 안진경을 중재자로 황제에게 천거했다. 황제는 그를 선위사로 임명하였다. 이희열 진영에 갔으나 2년여 억류되었다. 그는 이희열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안녹산에게 욕하며 죽은 사람인 안고경을 아는가? 바로 나의 형이다. 내 나이 여든이고 절개를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그가 부임해 판결하니 소송이 해결되어 기뻐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사

결국 감옥에서 목졸려 생을 마감했다.

### 조정 위해 목숨 바친 당대 4대 서예가

람들은 이를 어사우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고지식한 원칙주의자로,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지방관으로 보냈다. 이때의 경험이 후일 안사의 난을 대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755년 평원태수 제직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다. 반군은 하북 24군을 석권했는데 오직 안진경과 종형인 상산태수 안고경만이 평원과 상산을 사수할 수 있었다. 결국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고경과 그의 아들 안계명 등 삼십여 명의 안씨 일족이 죽임을 당했다. 현종이 사천으로 피난가고 숙종이 제위에 오르자 헌부상서 겸 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숙종이 병환이 깊어지자 임명하니 원제가 정국을 좌지우지했다. 형부상서 겸 어사대부로 중앙에 복귀해 원제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마음을 받아 다시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11년만 지방관으로 보내면서 서도가 진일보했으며 각계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768-777년 무주자사와 호주자사로 재임 중 많은 저술과 작품을 남겼다. 임천집, 마고선단기, 운해경원 등을 저술했다.

777년 원제가 죽자 형부상서로 중앙에 복귀했다. 779년 대종이 죽자 예의사에 임명되어 장례 절차를 주관했다. 779년 9대 황제로 즉위한 덕종은 정치

안진경은 적인걸, 우세한, 구양순과 함께 당대 4대 서예가로 불리운다. 그의 명성은 송대에 이르러 크게 평가되었다. 특히 조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충신으로서의 인간적 측면과 함께 평가가 높아졌다. 왕희지의 여성적 서체와 대비되어 남성적 풍모를 보여준다. 여러 서체에 능해 당대 이후 중국 서예계를 사실상 지배했다. 그는 급제 이후 초서의 명인 장욱에게 사사해 필법을 배웠다. 전서의 대가 이양범, 장희관, 회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안근, 레비, 안씨가묘비, 제질문고, 고신첩 등이 후대에 전승돼 사랑을 받았다. 다보탑기, 마고선단기 등과 같은 비첩들이 있으며 여러 목적이 전해진다. 잠두연미(鑿頭燕尾), 안근유골(顔筋柳骨) 같은 표현이 그의 서체를 설명하는데 인용된다. 잠두연미는 서체가 누에머리와 제비꼬리 같다는 의미로 구양순과 흔히 비교된다. 안근유골은 안진경과 유골의 글씨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로 글씨의 근기와 골기가 잘 갖추어졌다는 의미다. 그는 성당(盛唐)의 기상을 과시하였으며 해서에 창조성을 가미해 그것을 정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소식은 “안진경은 서예의 집대성에 복귀했다. 779년 대종이 죽자 예의사에 임명되어 장례 절차를 주관했다. 779년 9대 황제로 즉위한 덕종은 정치

# “국가 장난스럽게 불렀다”...中인터넷 스타 ‘철창행’

〈國歌〉

인터넷 방송 ‘국가 모욕’ 논란

국가법 규정 위반 구류 5일 처분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팔로워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왕홍’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장난스럽게 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구류 처분을 받았다.

15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은 인터넷 스타 양카이리(21)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규정을 위반해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

다. 공안은 “국가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모든 국민과 기관은 국가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며 “인터넷 방송도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카이리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숏 동영상 앱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만 팔로워가 4천4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다. 그녀는 지난 7일 밤 중국판 유튜브 격인 후야(虎牙)에서 온라인 음악 축제를 소개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약 3초 가량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인민여여’라고 시작하는 중국 국가 도입부 소절을 장

난스럽게 불러 중국 인터넷에서 ‘국가 모욕’ 논란이 일어났다. 양카이리는 논란이 일자 “진심으로 사과한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뜻이 없었고 조국에도 사과한다”면서 공개 사과문을 냈지만 구류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양카이리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자사에 불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후야는 양카이리의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틱톡 역시 양카이리가 올린 모든 동영상 삭제했다. 업계에서는 양카이리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온라인 방송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법에 따르면 악의를 갖고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한 자는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전보다 부쩍 강화했다는 평가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불량정보’ 유통 등을 이유로 대형 포털사이트 왕이(網易)와 유력 뉴스 사이트 봉황망(鳳凰網)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1·6 중간선거 레이스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공화당의 ‘뒤집기’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나온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유권자 1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민주당, 42%가 공화당을 각각 뽑았다.

민주당을 향한 표심은 여성 유권자에게서 크게 두드러졌다. 여성 응답자의 59%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공화당은 37%에

## 53% “민주당 지지” 42% “공화당 지지”

美중간선거 3주앞 여론조사...투표율도 높아질 듯

그쳤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48%로, 민주당(46%)보다 2%포인트 높게 나왔다.

올해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중간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76%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2014년(63%)과 2010년(70%) 중간선거 여론조사에 비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ABC방송은 “투표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특히 민주당원,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운 중도층, 18-39세의 젊은층에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1%로, 지난 8월 조사 때의 36%에 비해 뛰어올랐고, 이에 반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8월 60%에서 이번에는 54%로 내려갔다. WP-ABC 여론조사는 지난 8-11일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한편,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같은 날 내놓은 하원 선거 전망을 보면, 민주당이 과반보다 8석 많은 226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209석을 얻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조사보다 민주당의 석이 4석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조사는 유권자 4831명을 지속해서 추적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2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1.8%포인트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